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음 9월 18일) 제16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김근태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열린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세미나에 송하진도지사와 인제근 국회의원, 김광수, 안호영 국회의원, 최상명 우석대 교수 겸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장 및 토론,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양극화 심화... 대안은 '경제민주화'

도-경제통상진흥원-국회 민주주의연구회 정책세미나

지자체의 정책 사례 통해 지방정부 역할 강조
불평등 완화 위한 소득정책·연대 임금정책 제안
경제적 약자 이익 반영 조정시장경제 전환 주장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 재단의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주제발표중 제1주제는 홍종화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홍 전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과정의 비교를 통해 경제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한 뒤 지자체의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민주

화의 방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2주제 '한국의 불평등과 성장경제'의 발표자로 나선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노동시장 불평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정책과 연대 임금정책을 제안했다.
제3주제는 최태욱 한림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문제의 정치적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경제민주화 핵심목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시장 조정을 수월하게 하는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심흥토론은 이대근 경향신문 주필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토론자로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안호영 더민주 의원, 최상명 김근태 민주주의 연구소소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효과적인 대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운영이 민주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라며 법 제 개정과 제도개선 등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원활한 경제민주화 추진의 토대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맞춤형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 중앙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쌀 수매가 인상 역점 환영"

국민의당 김종희 의원, 박지원 비대위원장 발언에

국민의당 김종희 의원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17일 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예산국회에서 최우선순위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공공비축미 증가에 역점을 두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발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국민의당이 농도전북의 농민의 고통을 심본 이해하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동인을 전달한 비상대책회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등이 앞장서서 "쌀값폭락에 따른

멍든 농심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 차원의 노력을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가 인상은 물론 40만톤에 이르는 수입 쌀 금지와 생산량에 비례하는 수매량 및 공공비축미 증가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당한 결

과물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인 김제부인은 물론 전북농민의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쌀값대책이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제 진봉DSC에서 김종희 의원이 주관한 국민의당 차원의 쌀값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조배숙 비대위원 및 황주홍 쌀값 폭락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석해서 쌀값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3면 도내 공공비축미 10년째 '제자리'

도, 지역 문화재 활용 전국 최다

전북지역 문화관광 '활력 불어 넣었다'

전북도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정부 공모사업에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다 선정 실적으로 거뒀다. 전북지역 문화관광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등을 해 문화재 4대 활용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4개 사업,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376건(전북 41건)의 사업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이달에 250건(전북 24건)을 최종 선정했다.

야행·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서 24개 선정도 "미래가치 창출 계기"

▲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문화재 야행(夜行)
특히 전북도는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공모에서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 3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8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전주, 군산 2개 시군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로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리지역 문화유산에서 말하는 감동' 생생문화재
생생문화재 공모에는 전주시와 군산시 등 7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

치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역사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9건의 사업을 시행,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관심을 끌었다.
▲ '인문정신과 선비의 풍류를 만나!'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공모에서도 정읍시, 남원시 등 8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조선시대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였던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오감으로 느끼는 인의역지 plus, 전주향교', '향교동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남원향교)' 등 향교대상 7건과 '최치원의 사상과 현기투의 풍류를 찾아서(무성서원)' 서원대상 1건 등으로 3월까지 12월까지 운영된다.
▲ '전통산사 문화탐방,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공모에는 정읍시, 남원시 등 5개 전통산사가 선정돼 국비 1억 9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올해 신규공모사업으로 산사(山寺)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재 향유 콘텐츠 개발로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 내장사의 '천년 선사들 숨결따라 이어온 다도체험과 산사문화탐방' 등 5건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문화재를 적극 활용해 도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유산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워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